

U.S WEEKLY



박현지

02 3770 2611

hyunjee.park@yuantakorea.com

조윤수

02 3770 3682

yunsu.jo@yuantakorea.com

Key Data(05/14)

지수	S&P 500
증가 (pt)	4,173.9
시가총액 (십억달러)	36,863.9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712.4
52주 최고가 (pt)	4,232.6
52주 최저가 (pt)	2,922.9
1M 수익률 (%)	1.2

Key Data(05/14)

지수	다우존스
증가 (pt)	34,382.1
시가총액 (십억달러)	10,194.9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136.3
52주 최고가 (pt)	34,777.8
52주 최저가 (pt)	24,206.9
1M 수익률 (%)	1.9

Key Data(05/14)

지수	나스닥
증가 (pt)	13,430.0
시가총액 (십억달러)	22,329.2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630.4
52주 최고가 (pt)	14,138.8
52주 최저가 (pt)	9,185.1
1M 수익률 (%)	-3.1

YUANTA US WEEKLY



우량 기술주들의 약세흐름 두드러져

Weekly Review (05/10~ 05/14)

미국 CPI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

1) 경제회복과 함께 연준의 긴축행보가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지배한 한주였다. 4월 CPI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우량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흐름을 나타냈다. FAANG종목들은 주간기준으로 평균 -2.08% 수익률을 기록했고, MS, 테슬라 등도 각각 1.71%, 12.29% 하락했다. 특히, 테슬라는 차량판매에 비트코인 사용을 중단하기로 선포한 뒤로 불매운동이 거세진 모습이다.

2) 지난주 美 실업보험청구건수는 47만3천명으로 전주대비 3만4천명 감소하면서 예상치인 50만명을 하회하였다 (이는 작년 팬데믹 이전 3월 25만6천명 이후로 가장 낮음).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대비 0.8%, 전년대비 4.2% 상승했다 (YoY 기준으로 예상치였던 3% 중반대 웃음). 그 외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월대비 0.6%, 전년대비 6.2% 상승했다 (3월 MoM 1%, YoY 4.2% 상승률을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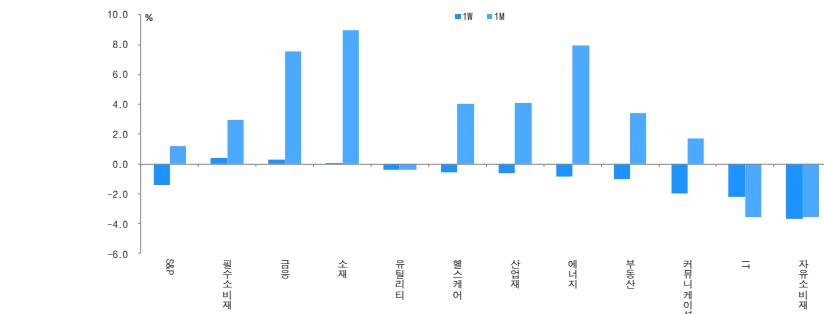
Weekly Performance (pt, %)

	종가	1W	1M	3M	YTD	PER(TTM)	PBR(최근공시)
S&P 500	4,173.9	-1.4	1.2	6.1	11.1	30.0	4.5
다우	34,382.1	-1.1	1.9	9.3	12.3	26.4	5.1
나스닥	13,430.0	-2.3	-3.1	-4.7	4.2	90.0	6.7
러셀 1000	2,342.7	-1.4	0.7	4.7	10.5	30.8	4.4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업종별 등락률(%)

S&P 500 11 개 섹터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S&P500 상승 종목 Top5

(단위: 억 달러, %)

종목코드	종목명	1W 수익률	시가총액(십억달러)
NLOK	NORTONLIFELOCK	23.77	15.18
STX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8.87	22.42
DXC	DXC 테크놀로지	6.78	9.38
VTRS	VIATRIS	6.38	19.34
PRGO	페리고	6.35	6.12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S&P500 하락 종목 Top5

(단위: 억 달러, %)

종목코드	종목명	1W 수익률	시가총액(십억달러)
HBI	해인즈브랜즈	-12.42	6.70
DHI	닥터 호튼	-7.81	34.71
LEN	레너	-7.64	30.44
HPQ	HP	-6.61	41.04
PXD	파이오니어내추럴리소스	-6.28	38.31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Preview

인플레이션 논쟁 지속되고 있어서, 금주에도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것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긴축돌입 가능성에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정치인 및 학계에서 인플레이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증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4월 CPI가 급등한 주요 요인이 유가로 부터 오고 있단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것 일 수도 있다. 고용지표가 추가로 개선 될 여지가 남아있는 가운데 과거 물가상승률이 유독 낮았던 점을 보았을 때, 지난주 시장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던 측면도 있다. 금주 19일 FOMC 회의록이 공개 될 예정이기에, 계속해서 연준의 코멘트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큰 관건이다.

반도체업체-미국 상무부 2차 회담, 증시에 악재 혹은 호재 일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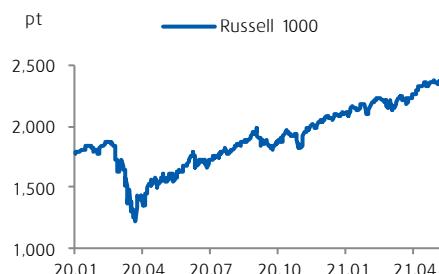
실적시즌이 마무리 되어가는 가운데 현재까지 S&P500기업의 약 91.4% (500개 중 457곳) 가 실적발표를 했다. 이중 86.2%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기업 누적이익 합산치는 예상치 대비 23.3% 상회하며 선방했다. 금주에는 대표 소매업체인 월마트, 타깃, 훠디포 등이 실적발표를 이어간다. 금주 주요 실물지표로는 4월 주택착공건수, 4월 기존주택 판매, 5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5월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PMI)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 외 주요 이벤트로는 20일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업체 간의 칩 공급부족 사태 논의를 위한 2차 정상회담이 개최 될 예정이다 (회의 이후로 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음).

S&P 500 지수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Russell 1000 지수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나스닥 지수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다우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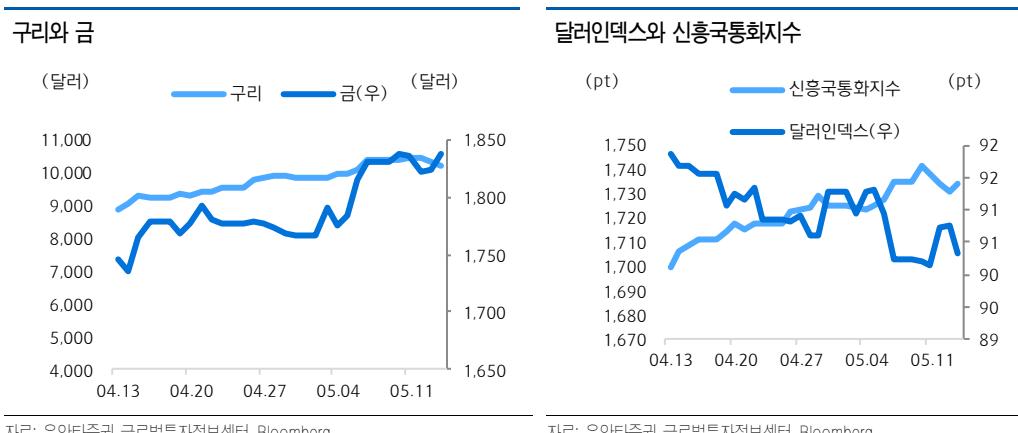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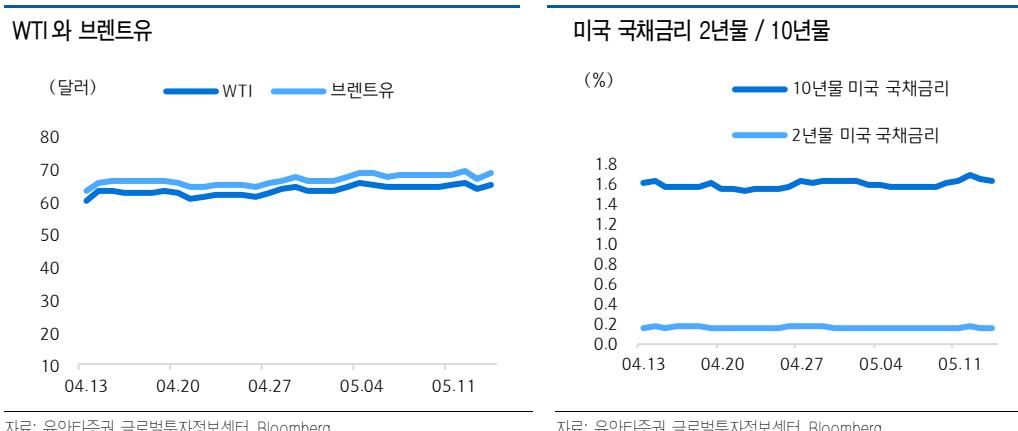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주요 경제지표

경제회복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채권가격 하락

주간기준으로 국제유가인 WTI는 배럴당 0.72% 상승한 65.37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해킹으로 인해 송유관 가동 중단 사태의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물론, 송유관 운영재개가 됐지만, 아직까지 국내 일부 주에서 여전히 석유제품의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행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도 원유수요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 영국내 코로나19 백신 도입률 각각 36.6%,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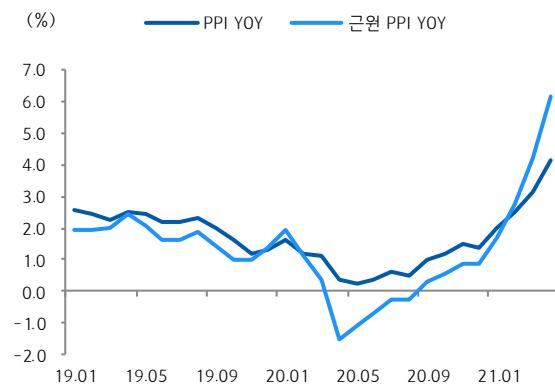
달러화가 주간기준으로 0.11% 상승했고, 금값도 0.37%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이 채권매입 축소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국채가격 하락).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5/7 1.60에서 5/14 1.63%로 상승했고, 30년물 국채수익률도 5/7 2.28%에서 5/14 2.36%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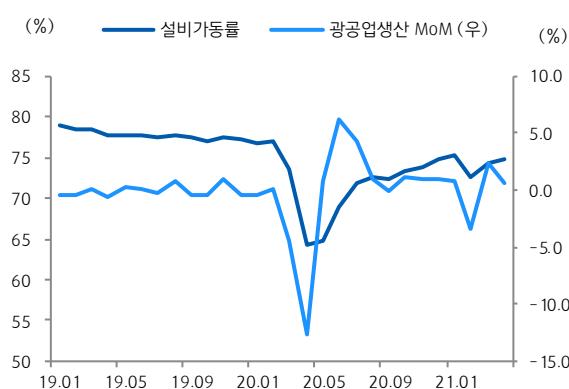
4월 CPI YoY 4.2% 상승. 균원 CPI YoY 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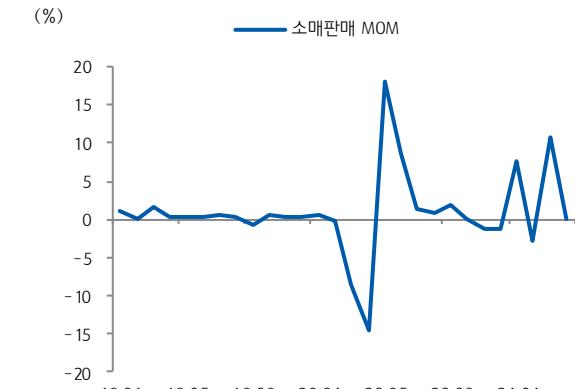
4월 균원 PPI YoY 6.2% 상승. PPI YoY 4.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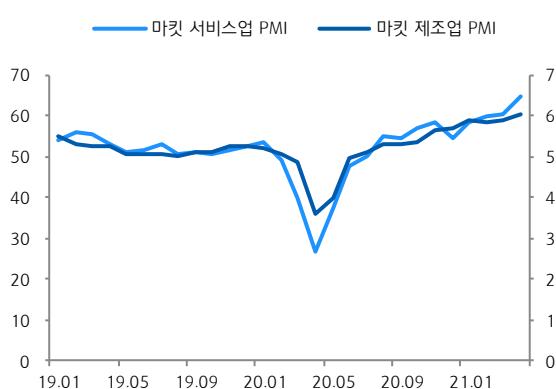
4월 설비기동률 74.9%로 2개월 연속 회복세



4월 소매판매 MoM 0% 증가. 보조금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



미국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예상치 60.2/64.5



4월 컨퍼런스보드 선행지수 발표 예정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박현지, 조윤수)
- 위 종목은 Yuanta Greater China Daily에 수록된 Yuanta Investment Consulting(대만) 소속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와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준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